

2011.11.14 미래정책연구실

□ USDA, 재생연료 생산사업 지원

※ 자료 작성: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미래정책연구실

1. USDA(2011.11.07) 주요 내용

- 미국 농무부는 뉴멕시코주 바이오연료 회사의 **녹색연료(Green crude oil) 생산시설 설립을 허가하고 사업지원에 나섰다고 밝힘.**
 - 톰 빌색 농무부 장관은 “오바마 정부는 국가안전보장과 농촌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재생에너지 생산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사업 역시 농촌자원으로부터 판매 가능한 규모의 에너지를 생산하는 신바이오 연료산업의 일환”이라고 언급함.
 - ※ 녹색연료(Green crude oil)는 조류(藻類)로부터 추출되는 바이오연료로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음.
- **재생연료 생산사업**은 2022년까지 바이오연료 360억 갤런을 생산 목표로 하는 재생연료기준(Renewable Fuel Standard: RFS2) 계획과 같은 맥락이며 바이오연료정제 지원계획(Biorefinery Assistance Program)을 통해 사업을 지원함.
 - 예산규모는 약 1억 3,500만 달러 수준이며 통합조류바이오정제소 (integrated algal biorefinery: IABR) 설립을 통해 운용될 예정임.
 - IABR의 조류연료 정제처리능력은 일일 최대 100 배럴 규모이며, 연간 100만 갤런 수준임.
- 농무부는 본 사업을 통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연료가격을 안정시키는 한편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것으로 예상함.
 - 조류로부터의 연료 생산은 상업용과 군사용 연료의 미국내 생산을 위한 하나의 대체재 생연료 생산사업으로서 기대하고 있음.
 - 농무부는 바이오연료 활용을 위해 미해군성(Department of the Navy)와 미국연방항공국(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: FAA)등과 MOU를 체결하고 고효율 항공연료생산에 위한 원료개발에 협력할 계획임.

- 또한, 이번 재생연료 생산사업은 농촌지역의 거주민, 경영체, 농목축업자들의 경제적 안정과 농촌의 정주여건 향상에 기여하도록 고안된 것이라고 밝힘.